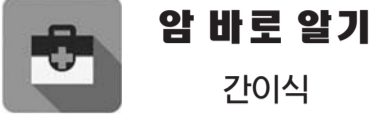


간암 재발 막고 간 기능 회복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간이식



암 바로 알기
간이식

**도움말 = 조선대병원 외과
신민호 교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코카서스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어 먹히는 형벌을 받습니다. 매일 밤사이 회복된 간을 매일 낮 독수리에게 다시 먹히는 영원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간은 이토록 회복 능력이 뛰어난 장기이지만 자가 회복 능력을 넘어서는 정도로 망가진 경화된 간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일 간을 쪼이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화된 간 암 발생위험 높아=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B형 간염(72%), C형 간염(12%), 알코올성 간염(9%)에 의한 간경화를 동반합니다. 즉 90% 이상은 간암 발생 전부터 기저 간질환에 의한 만성간염, 간경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화된 간은 정상 간보다 간암발생위험이 30-100배 정도 높습니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위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확률입니다.

따라서 간암에 걸렸을 때 간암 병변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는다면이라도 남아있는 간 또한 간암발생위험이 높아, 이는 마

간이식 받은 환자 3년 생존율 90%·5년 생존율은 80% 이상
전이 안되고 혈관 침범 없고 병변 크기가 5cm 이하여야 가능

치 흡연에 의해 폐암에 걸린 암환자가 폐절제 수술 후에도 하루 3-4갑의 흡연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간 절제술과 간이식=간암 병변이 포함된 간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인 간절제술 후의 5년 생존율은 33.6%(2011~2015년, 보건복지부)로 예전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으나 다른 암들의 수술 후 생존율에 비해 아직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는 남아 있는 간에서의 암 재발과 말기 간경화의 진행에 의한 사망 때문입니다.

진행된 간경화의 경우에는 간 회복 능력이 심각하게 감소되어 간절제술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더 적은 색전술이나 고주파열치료 등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경화가 있는 간에서 발생한 간암을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이처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식만으로도 간암의 치료로서 간이식을 받은 환자의 이식 후 3년 생존율은 90%, 5년 생존율은 80% 이상입니다.

간이식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진행된 간경화에서 발생한 조기 간암'입니다. 진행된 간암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데, 평생 복용해야할 면역억제제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에게 기증받는다 하더라도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이상 우리 면역체계는 이식된 장기를 이물질이나 병균으로 생각하고 공격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식된 장기의 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해서는 면역체계를 어느 정도 억제 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정상 세포와는 다른 모양과 기능을 보이는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곳 또한 면역체계입니다. 즉,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상태에서 간이식 재발했을 때에는 아주 공격적이며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발의 위험성이 낮은 조기 간암에서의 간이식만이 높은 생존율을 보장하게 됩니다.

◇간 이식의 기준=첫째로,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어야 합니다. 간이식 이미 폐나 뼈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병든 간을 떼어내더라도 간암 세포를 모두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이식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간문맥, 간정맥 등의 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큰 혈관에 직접 침범이 없어야 합니다. 큰 혈관 침범이 있는 경우 이미 몸을 돌고 있는 혈액 속에도 간암세포가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식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간



조선대병원 신민호 외과 교수가 간이식 수술을 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암 병변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크기가 5cm 이하여야 하며, 간암 병변이 여러 개인 경우는 개수가 3개 이하이고 그중 가장 큰 것의 크기가 3cm 이하여야 합니다.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간암 환자가 간이식을 받았을 때 간암이 재발하지 않고, 완치될 수 있습니다.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던 프로메테우스는 영웅 헤라클레스에 의해 독수리가 사살됨으로써 그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간이식은 간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간경화를 함께 없애버릴 수 있는 간암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한편 조선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1999년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간이식 수

술에 성공했다. 이어 충청·호남권 최초로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2013년), 충청·호남 최초 간·신장 동시 이식(2013년), 충청·호남 최초 소아 간이식(2014년) 등을 성공시켜 장기이식 분야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임을 과시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결핵관리 '우수 기관상'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조선대병원(병원장 배학연)이 최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18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으로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은 민간 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해 결핵 환자를 관리해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수병원 선정은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 사업단'에서 결핵감좌 개최 및 만족도 결과, 결핵관리전담간호사 1인당 신고환자 수 통계 및 기관 내 결핵관리지표 등 전반적인 현황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조선대병원 호흡기내과 윤성호 교수는 "과거 7,80년대 우리나라에서 맹위를 떨치던 결핵은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다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병원으로 선정된 만큼 광주는 물론 전남권역을 대표하는 우수병원으로서 결핵관리 및 치료율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조선대병원은 윤성호 교수를 중심으로 호흡기내과 이승일·나용섭 교수, 알레르기내과 권용은 교수와 결핵관리 박현희 전담간호사를 두고 결핵환자 관리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한국신경모니터링학회 워크숍

한국신경모니터링학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제4회 워크숍을 조선대병원(병원장 배학연)에서 진행했다. 한국신경모니터링학회는 갑상선 수술 시 후두신경 손상에 의한 음성 장애를 최소화하는 수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2회의 워크숍과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조선대병원 외과 김유석 교수의 집도로 갑상선 수술시 신경모니터링을 적용하는 수술 시연을 가졌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하루 15~20분 햇볕 쬐면 노쇠 예방

비타민D 높을수록 효과
보충제는 과하지 않게

노년기에 체내 비타민D 농도가 높을수록 노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쇠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로, 근육감소, 기억력 감소, 우울한 기분 등이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려면 노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주상연 교수, 고려대 의학통계학과 이준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미국, 유럽에서 혈중 비타민D 농도와 노쇠를 주제로 연구한 8편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비타민D는 골다공증, 인지기능 저

하, 심혈관질환과 암성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령층에서는 소화기능 저하, 근육량 감소, 일조량 부족 등으로 신장기능이 떨어지면서 활성형 비타민D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번 분석 대상자는 60세 이상 2만 1207명이었다.

연구팀은 혈중 비타민D 농도가 정상 범위(12.5~95nmol/l)인 경우 농도가 25nmol/l 씩 증가할 때마다 노쇠 위험이 12%씩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했다.

비타민D는 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복용하면 체내 농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보충제 복용의 경우 너무 과도하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중 비타민D 제품으로 치면 하루 1~2알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고한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